

아이엠재활병원, 재활병원 표준모델로 우뚝서다

“지역기반 재활시스템 정착에 최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40에 위치한 아이엠재활병원(원장 우봉식)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 병원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재활전문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봉식 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대형병원과 공공병원 위주로 재활의료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제는 환자가 집 가까이 있는 민간병원에서도 질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엠재활병원은 연면적 1만2,000여㎡에 지상 8층(지하 1층) 규모로 243병상을 갖추고 지난 5월 개원했다.

로봇재활을 통한 환자 기능별 맞춤 재활치료 서비스 및 최첨단 진단장비, 그리고 뇌 척수질환 재활 치료에 최적화된 650평 규모의 재활치료센터를 갖추고 있다.





▲ 재활치료센터.

전체 병상 가운데 집중치료실 13병상, 집중재활 병실 24병실 등 집중초기재활 기능을 갖춘 치료 시설이 30%에 달한다.

집중재활병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병상 1개당 면적이 3.3평으로 법적 기준인 1.3평에 맞춰 병상을 많이 놓기 보다는 환자들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뇌와 척수질환 환자의 재활 치료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재활치료센터도 650평의 대규모로 만들어져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첨단 로봇장비를 들여와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첨단 로봇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재활 프로그램은 경두개자극치료, 기립경사로봇치료, 보행로봇치료, 교차진동치료 등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부터 점차 기립보행 단계까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이러한 병실과 치료 시스템은 환자가 1단계 1:1 치료를 하는 중환자실, 2단계 1:1 간병 치료하는 집중재활실, 3단계 4:1로 간병하는 공동간병실, 4단계 스스로 움직이며 치료받는 일반병실을 거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원스톱 치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치료 외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정서적, 심리적 치료에도 공을 들였다.

환자들이 침상에서 홀로 식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병실마다 공동 식탁을 뒀 환자의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병원만의 특색이다.

이 외에도 배드민턴장, 탁구장, 옥외 보행트랙, 힐링가든, 천년의 샘, 예배당 등을 조성하여 운동과 휴식,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 역시 최강으로 구성됐다. 우 원장을 비롯해 청주 남궁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지낸 정형외과 전문의, 연세의대를 졸업한 재활전문, 한양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청주시 한의사회장을 지낸 한방침구과 원장 등 풍부한 임상경험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듯 재활부문에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과 환경으로 재활 의료인들 사이에 알려지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병원 준공 기념식 때 특강차 방문한 소노다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이 “이런 정도의 재활시설을 갖춘 병원은 일본에서도 흔치 않을 정도”라고 극찬 할 정도로 아이엠재활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국내 재활병원의 표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엠재활병원이 국내 최고 재활병원으로 평가받기까지에는 평소 “재활전문병원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겠다”면서 새병원의 설계에서부터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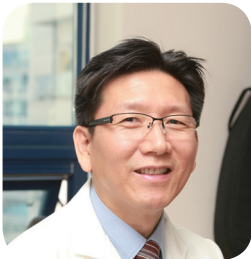
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정을 쏟은 우봉식 원장의 사명감 때문이다.

우봉식 원장은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가장 선진화된 재활치료 시스템이 갖춰진 일본을 수차례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했다.

현재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 원장은 재활치료의 목표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

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진 일본과 같이 민간병원이 중추가 되어 환자가 집 가까이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재활 시스템의 정착과 더불어 재활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회복기 재활병원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재활병원의 글로벌스탠드가 된다”는 게 우 원장의 목표다.



우봉식 원장

“치료의 끝은 재활이다”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또한 8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는 (회복기)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 지정 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우봉식 원장은 “이번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많은 장애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재활의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재활의료 체계에 큰 획을 긋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한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 못지않은 큰 고통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병원이나 급성기 일반 병원의 경우 장기 입원을 억제하는 건강보험수가제도 때문에 환자가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3개월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소위 ‘재활난민’이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인프라로서 재활병원을 지정, 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우 원장은 평가했다.

우 원장은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계기로 바람직한 재활병원 제도를 정립해 ‘환자를 가정과 사회로 돌려 보내는 진정한 재활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